

C-14. 치간유두 재건 술식의 증례 보고

장봉철*, 김재형, 주상돈, 이재목, 서조영

경북대학교 치과대학 치주과학교실

대화나 미소시에 노출되는 상악전치부에서의 치간유두의 소실은 'black triangle'의 형성으로 심미성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게 된다. Tamow는 치간유두의 존재유무는 치간접촉점 기저부에서 치조골정까지의 거리와 상당히 관련이 있으며, 치간공극을 치간유두가 완전히 채우기 위해서는 이 거리가 5mm 이하여야 한다고 보고하였다. 치간유두부의 퇴축은 순, 협축 치은의 퇴축과는 달리 현재까지는 예지성 있는 안정적인 술식이 확립되어 있지 않으나 치간유두를 재건하기 위한 외과적 노력이 지속적으로 있어 왔다. Shapiro(1985)는 ANUG로 소실된 치간유두를 반복적인 치은연하 소파술과 적절한 구강위생으로 재생시킨 증례를 보고하였으며, Beagle(1992)은 Abram의 Roll Technique을 응용하여 치간유두 재건의 가능성을 보고하였다. 또, Robert Azzi 등(1999, 2001)이 치은결체조직 이식술과 자가골이식을 동반한 치은결체조직 이식술로 치간유두를 부분적으로 재건한 증례를 보고한 바 있다.

본교실에서는 상악전치부의 퇴축된 치간유두 부위에 다양한 치간유두 재건 술식을 적용하여 소정의 결과와 함께 치간유두 재건의 가능성과 한계점에 대하여 보고하고자 한다.

증례 1

Roll technique을 응용한 방법으로 치간유두의 재건을 시도한 증례

증례 2

치간골 상방에 치은결체조직 이식술로 치간유두의 재건을 시도한 증례

증례 3

치간골상방에 자가골 이식을 동반한 치은결체조직 이식술로 치간유두의 부분적 재건 후 복합레진충전으로 심미성을 증진시킨 증례